



2012 엑스포 여수로

실사단 입국 이틀째

엑스포 유치 서명 145만명 참여

실뱅 단장 “총리가 첫 환대… 한국정부 열의 느껴”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 2012 여수박람회 후보지 실사단은 10일 첫 프리젠테이션과 국회의장 면담, 경제단체장 오찬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까르망 실뱅 단장을 비롯한 7명의 실사단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여수박람회 명칭과 주제, 의미 등을 설명하는 첫 프리젠테이션에서 여수박람회 가인류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등 예리한 질문과 함께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실뱅 단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여수의 유치 적합성을 두고 벌이게 될 토론을 협상과 대화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질문과 코멘트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수와 한국의 프로젝트를 정확히 파악해 총회에서 98개 회원국에 한국과 여수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5단체, 실사단 초청 환영 오찬 임국회의장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

특히 실뱅 단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곳에서 실사보 고를 받게 됐다”면서 “심도있는 협상의 결과일 것으로 생각하며 타결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실뱅 단장은 이어 “다만 한·미 FTA 협상처럼 격렬

하기보다는 평등한 협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와 만찬을 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국무총리였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유치를 열의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면서 “환대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철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동원그룹 회장)은 “실사 보고를 하게 된 하얏트호텔은 14개월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한·미 FTA 협정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의미있는 장소”라면서 “공교롭게 이번 실사의 시작을 같은 장소에서 갖게 돼 성공적인 실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실사단과 면담한 임재정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실사단을 초청해 환영오

찬을 열고 재계 차원에서 여수 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CJ 회장) 등 경제단체 회장단과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최한영 현대차 사장, 김용환 가야차 부사장, 김병철 삼성전자 상무 등이 참석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효성그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1993년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인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며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 회장은 “여수는 박람회 주제로 제시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등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추구를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 육성수면 지정 해제를 주장해 온 경남 남해군 어민들이 결국 국 BIE의 현지 실사 때 시위를 강행키로 해 현지에서는 초비상이 걸렸다. 남해군 24개 어촌계로 구성된 ‘전남 육성수면 지정해제 남해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남해경찰서에서 ‘11일

오후 5시30분부터 15일 오후 7시까지 남해군 서면 서상선착장과 남면 덕월리 선착장 등 두 곳에서 1천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갖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당초 계획했던 해상 시위는 벌이지 않기로 했지만 집회 장소가 실사단이 묵을 남해 힐튼리조트와 불과 1km 밖이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이 긴장하고 있다.

남해 어민들은 지난 7월 전남도에서 동경 128도선을 경계기준으로 삼아 남해군 상주면 백서와 세존도 인근 해상을 포함하는 2천816ha를 2008년 2월까지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자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여수시와 남해군은 어민들의 집단행동이 실사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해 어민들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가 현안을 도외시한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이 10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프리젠테이션에 앞서 김재철 유치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등과 함께 여수박람회 조감도를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선 의지·내용 설명, 여수선 개최능력 과시 개도국 해양과제 해결 100억여원 지원도 밝혀

■ 실사 핵심, 프리젠테이션 뭉치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현지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사의 핵심인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IE 실사단 7명은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총 5차례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개최후보지인 여수의 개최능력과 유치의지, 개최계획 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은 모두 14개 항목 61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쟁국인 모로코 탕헤르나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대한 실사에서도 중점 항목은 똑같다. 프리젠테이션은 영상 및 서면자료 제출과 질의 등의 순으로 이어지며, 비공개 원칙이어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실사단은 14개 항목의 프리젠테이션과 서울·여수 현지 시찰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열리는 세계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98개 회원국에 여수와 한국에 대한 실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10일 서울에서 열린 두 차례의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의 명칭과 주제, 전시분류, 개·폐막일, 의미, 국제적·지역적 개최 이유, 정부 지원 및 정치·경제·사회적 안전성 등이 다뤄졌다. 정부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이라는 주제의 적합성을 설명한 뒤 여수박람회가 지역이나 국가, 인류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집중 설명했다.

유치위는 또 2008년부터 엑스포 개최 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해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해수면 상승문제, 해수의 담수화, 자연재해의 원인과 대책 등 개발도상국의 시급한 해양과제를 조사·연구·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전 세번째 프리젠테이션에서는 관람객 수와 숙박대책이 점검되고, 12일 여수 현지에서 진행되는 네번째 프리젠테이션에서는 개최지 부지 및 교통여건, 박람회장 조성 및 사후 활용 계획, 전시 참가자 수와 유형 등 3개 항목이 점검된다.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재원 조달 등 재정계획, 예산 소요 비용 산출을 위한 지표 등 2개 항목에 대해 설명이 이뤄진다.

유치위 관계자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3개월 행사기간 동안 80개국 79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 10조 3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1000억 원의 부가가치효과가 기대된다”며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공항~시청 시가지 꽃 물결 넘실 ‘실사단 거리’ 2만여 만국기 장관

■ 여수 현지 표정

2012세계박람회 후보지 현지 실사를 하루 앞둔 10일, 봄 기운이 완연한 여수 시가지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리를 정돈하던 시민들은 “이번 박람회에 여수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준비된 여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이 도착하는 여수공항에서부터 시청까지 모든 도로는 재포장과 차선도색으로 말끔히 단장됐으며, 도로변에는 태극기와 함께 박람회 상징 깃발과 BIE회원국 국기, 실사단 대표 소속 국가가 내걸려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도로상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실사단 대표 7인의 사진과 환영 글씨가 번갈아 떠올랐으며, 팬지와 페슈니아 등 각종 꽃으로 장식된 3척의 거북선을 비롯 꽃으로 뒤덮인 50개의 조형물이 시가지를 장식했다.

실사단 첫 방문지인 여수시청 앞 광장엔 여수와 순천, 광양지역 시민 3만여 명이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만든 노란색 희망 리본 3만여 개가 바람에 나부꼈고, ‘실사단 거리’로 이름 지어진 500m길이의 시청 앞 도로에는 하늘을 가로지른 2만여 개의 만국기에 뒤덮여 장관을 이뤘다.

여수 신항 부두에는 11일 열리는 시민환영 리셉션을 위해 국내 최대규모인 5천t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이 정박해 있으며, 해군과 해양수

산부 그리고 여수시청 직원들이 환상 리셉션을 위한 음식과 무대 준비, 안전문제 등에 대해 숙의를 하는 등 마무리 준비에 한창이었다.

최오주 여수시 부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여수공항부터 해양공원까지 실사단이 움직이는 12km구간에 대한 환경정비 및 시민환영 행사 준비 상황을 둘러봤다.시는 또 가두 방송을 통해 11~12일 이틀간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고 이부제 차량 운행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와 중앙유치위는 이와 함께 실사단이 하룻밤을 묵고, 프리젠테이션이 열린 남해 힐튼 리조트를 방문해 객실 상태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여수시민들은 긴장 속에 실사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준비된 여수, 그리고 여수시민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한국기업인증(주)은 2001년 10월 “전자신용인증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 현재 약 250 여개 대기업에서 구매 조달 업무에 활용 중이며, 30,000여 협력회사가 전자신용인증서를 발급 받아 협력업체 등록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9월부터는 협력회사의 연해부도 위험관리를 위하여 “거래위험보고서”라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연간 15,000여개 기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인증(주)은 2005년 4월 국내 최고의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주)의 계열로 편입됨에 따라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한국기업평가(주)의 신용평가노하우에 기초하여 다양한 상품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기업인증
www.ecredible.co.kr
152-78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타워 8차 14층
Tel : 02-711-4116
Fax : 02-713-4614
E-mail : ecredible@ecredible.co.kr